

응원봉과 K팝으로 성장하는 민주주의

자치CEO

우승희
영암군수



2024년 12월 겨울을,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간 변곡점으로 기록할 것이다. '다시 만난 세계' '빼박하게' '좋지 아니한가' '아파트' '탄핵 캐롤' 등 K팝이 거리를 가득 채워서 그렇다. 촛불을 대신한 응원봉이 세대 통합의 빛으로 거리를 환히 밝혀서 그렇다.

한밤중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1막을 내렸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2차 탄핵소추안 발의와 찬성 204표 가결로 2막이 정리됐다. 비상계엄에서 탄핵안 가결까지 11일간은 국민 승리의 시간이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상황이 정리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은 두 가지다. 1979년과 2024년 비상계엄의 차이를 만든 상황변수이기도 하다. 바로 '1987년 개헌'과 '1995년 지방자치 시행'이다.

1987년 개헌은 1979년 비상계엄 이후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5·10민주화운동을 딛고 이뤄졌다. 새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삭제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면서 국경감사관과 비상계엄 해제 요구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헌법재판소도 신설해 사법권의 독립을 더 두텁게 보장했다. 헌법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군부 독재를 극복한 역사적 교훈을 제도화한 결과물이었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안정적 리더십도 도드라졌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지도자를 보며 국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995년 전면 시행된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내년이면 시행 30년이 되는 지방자치 덕분에 중앙정부의 혼란에도 지방정부는 주민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었다.

반면, 지난 2년 반 동안 지방정부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중앙정부의 부자감세와 세수평크는 고스란히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졌고, 지방정부의 살림살이가 위기에 놓였다. 보조금 혁신과 고통 분담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수밖에 없었고, 시민의 삶은 날로 팍팍해져만 가고 있다. 지방에서라도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오늘도 전국 지자체들은 국·도비 공모사업과 고향사랑기부제 등에 사활을 걸고 재정확보를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이다.

1980~90년대 돌과 최루탄이 차지했던 거리는 2016년 촛불이 채웠고, 2024년 응원봉으로 빛나고 있다. 짱돌과 촛불, 응원봉으로 바뀐 거리의 모습은 진화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물리적 실체다. 군부독재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폭력적 방법 외에는 의사 표현을 할 방법이 없었다. 맨주먹으로 항거했던 시민과 열사들의 피와 눈물로 우리 민주주의는 제도화됐다.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의 반복된 과정에서 성장했고,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거리로 나온 2030 세대는, 거기서 더 진화한 민주주의를 창조해 냈다. 한 번도 빼앗

겨본 적 없는 일상을 위협당한 세대들의 거리 행은 자연스러웠고, 폭력적 언어와 물리력이 아니어도 시민이 뜻을 모으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문화제에 함께하고 발언하는 시민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넘실댔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은 응원봉, K팝 등 자기 일상의 한 부분을 직접 민주주의의 장인 집회장으로 옮겨왔다. 일상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질서를 다시 찾기 위해 나서는 시민의식이, 일상과 민주주의의 이상적 접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가치가 아니었다. 내가 부르는 노래의 선율과 내가 흔들는 응원봉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재미있는 콘서트장이었다. 부담감 하나 없이 나를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옹립해 주는 흥미진진한 축제장이었다. 여기에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차와 음식으로 대신하는 선결제, 권력이 순응하지 않는 풍자와 해학의 골재미가 더해지자, 민주주의는 새로운 문화의 아이콘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은 민주주의가 됐고, 민주주의의 본령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임이 더 또렷해졌다. 1987년 이후 제도화된 형식적 민주주의는, 2024년 시민의 일상을 깨우며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성큼 나아가는 중이다. 세계 언론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평가가 대체로 이와 대동소이하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길 기대한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탄핵으로 3막을 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탄대로를 열어야 한다. 상처 입은 한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존심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지름길이 파면에 있다.



전일광장 박안수 경제학박사·칼럼니스트

아주 보통의 하루

별써 2025년도 벽걸이카렌다를 소지한 시민들이 보인다. 내년은 을사(乙巳)년 푸른 뱀띠 해이다.

뱀은 다소 혐오스럽지만 다산과 재물을 상징하고 지혜와 환경적응에 뛰어나며 스스로 허물을 벗는 등 자기혁신의 이중적 면이 있다.

새해에는 열광해야 할 올림픽도 월드컵도 없는 자칫 무미건조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대 트렌드를 연구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몇 년 전 작지만 나에게 있어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小確幸)'이 차츰 상업적 마케팅도 가미되어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이에 반해 새로운 해에는 너무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일상, 그저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安穩)한 삶을 가지 있게 여기는 태도인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를 주창하고 있다.

즉 큰일이나 사건사고도 없고 이변이 없는 아주 보편적인 하루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익히 우리는 경험과 학습을 했다.

어쩌다 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을 가보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노벨문학상을 받는 한강 작가 역시 노벨문학상 확정 소감에 '개인적 삶의 고요에 대해 걱정해주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믿고 바란다' 라고 그저 평범한 일상이길 희망하고 있다.

작가는 일상이 글을 쓴다고 했듯이 노벨상 수상 신드롬 독서열풍에 그치지 말고 인문과 책의 도시인 우리지역에서 책

을 가까이 하는 시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또한 소설이 영국옥스포드대학교 교재로 채택된 작가 차인표도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오늘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오늘의 인터뷰가 인생 마지막 인터뷰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진실을 말하자고 스스로 주문을 거는 것 누군가를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에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투우장의 소가 마지막 열전을 앞두고 홀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의미하는 '케렌시아'(Querencia)를 생각해 보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기회와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

관공서와 대기업 밀집지역에서 점심식사 후 목걸이 명찰을 패용하고 유명 브랜드 커피를 들고 걷는 것이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라고 본다.

몇 년 전 언어전문가들이 뽑는 가장 긍정적인 언어가 행복, 사랑도 있지만 '홀가분하다'를 최고의 언어로 택했다.

그렇다 홀가분하다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의 상황이다.

해서 끝인사에 행복보다는 홀가분하라는 말을 더 인용하고 있다.

새해도 우리 호남인들에게 열광과 희망을 선물할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연승과 광주FC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다만, 지금도 심한 불경기이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한 트럼프2기정부가 출범하면 대미(對美)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인지한 사실이다.

소비가 미덕일 수 있지만 서민경제에서는 절약이 정답에 더 가까울 것으로 슬기로운 경제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jnil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남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